

大韓建築學會論文集 2025. 2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Vol.41 No.2

www.aik.or.kr

計劃, 設計, 歷史·建築論, 都市·地域, 環境設備, 構造, 材料, 施工

제 41 권 제 2 호 (통권 436 호)

판례분석을 통한 건축저작권 침해 판단과정과 기준 도출	이지은 · 손동화	3~12
공공도서관의 적정 규모 산출을 위한 물리적 영향요인 분석	김백준 · 석민철 · 최준호 · 이권형	13~23
건축공간 시각인지 분석을 위한 시선추적 데이터의 웹 기반 3차원 시각화	최태호 · 지승열 · 전한중	25~32
지역시설 분포를 반영한 학교복합시설의 방향성에 관한 연구	김성윤 · 이경선	33~44
코리빙 하우스의 현관 계획에 따른 거주민의 영역성과 공동체감 형성에 관한 연구	김벽연 · 황희준	45~52
울란바토르시 공공도서관의 시설 특성과 한계	알탄호약 오강치택 · 변나향	53~60
부동산 가격 폭등기 정책과 전후 가격변동의 실증 평가	권준범 · 김덕수	61~69
도시 인접 해변의 공공성 개선 방안 연구	금재현 · 조항만	71~82
박물관 만족도 영향요인에 관한 관람객의 행태 비교	박철호	83~94
인공지능기반 기본설계업무 자동화율 연구	황영미 · 이명식	95~104
경제성 관점의 학교시설 개선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지표 및 방법 연구	강석진 · 배정익 · 김재영 · 서민진	105~115
배출자 및 중간처리자 의견을 반영한 건설폐기물 처리 개선방안 중요도 분석	천유진 · 권나현 · 안용한	117~127
서울시 수변공간 설계공모에서의 보행가능성 구체화 해석 연구	김예리 · 박소현	129~140
정책변화에 따른 한국병동의 변천과정과 공간적 특성에 관한 고찰	이수경	141~152
1939~1942년에 계획된 부영주택의 건축적 특징	이하준 · 이경아 · 김상태	153~164
호우로 인한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피해 특성	김세현 · 이도희 · 이정수	165~176
부여 군수리사지 목탑지 굴립주 시설 용도 재검토	전성현 · 김상태	177~186
미스 반 데 로에의 십자 기둥: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봉일범	187~196
지역성 담론의 관점으로 바라본 김한섭의 건축관	고정희 · 백진	197~208
미완의 원고들: 김정희의 러시아어 학위논문과 북한 번역본의 비교	박동민	209~220
모아타운 사업 전·후의 폭염기 열쾌적성 변화 시뮬레이션	배웅규 · 이준	221~232
국내 대학기숙사에 거주하는 국내·외 대학생들의 거주만족도 분석연구	코체트코바, 에카테리나 · 김원필	233~240
서울의 자전거 일상생활권 측정과 이용 패턴 분석	이선재 · 박소현	241~250
기능적 도시 축소의 공간적 형태에 관한 연구	김희연 · 이삼수 · 홍성조	251~260
공공청사 아트리움 구조의 유형별 열환경 분석	최재규 · 강명수	261~272
실간 차압 제어 시스템의 음압 형성 및 입자 유출 제어 성능	조희운 · 김기훈 · 조성민 · 성민기	273~282
분산 에너지 시스템 보급을 위한 도시 유형 분석 연구	방선규 · 유정현	283~289
도지이용 변화 개발사업의 탄소흡수원 훼손 영향을 고려한 온실가스 저감 취약성 분석 연구	윤홍민 · 윤성환	291~299
평균법과 동적법을 이용한 공동주택 외벽체의 단열성능 노후화 분석	고명진 · 이예지 · 최두성	301~310
케이블-콘크리트 외장재 접합부의 풍하중 성능평가	박현수 · 마종운	311~317
CFRP 그리드 보강재의 접수에 따른 콘크리트 슬래브의 뒹림전단거동 평가	윤현도 · 박완신 · 김선우 · 김정은	319~326
다층의 부력체가 플로터블 건물의 지진력 감소에 미치는 영향	박정아 · 이영욱	327~336
건축용 샌드위치패널 구조물의 내부 가연물 성능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도장 박리 및 날림현상 중심으로	강경신 · 문소윤 · 채승언 · 이재승 · 유지선	337~345
세계 주요국의 미끄럼 시험방법 표준화 동향 및 대표적인 미끄럼 시험기 간의 연관성 고찰	최수경 · 백권혁	347~358
미장공사용 전통 곡물풀의 보관 조건이 부패 시점에 미치는 영향	정세은 · 강성훈 · 권양희	359~365
RBM 기반의 모듈러 시공단계 안전관리 체크리스트 개발	조선에 · 김진우 · 김성진 · 전정호 · 윤성환 · 전정호	367~374
공공 시설물 전염병 예방 정책의 접촉 빈도 저감 효과 및 건물 운영 효율성 분석	신우진 · 허찬 · 안창범 · 윤인석 · 박문서	375~380

도시 인접 해변의 공공성 개선 방안 연구

- 광안리해변의 공공성 분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Strategies for Improving Publicness in Urban adjacent Seasides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Publicness of Gwangalli Beach -

금재헌* 조항만**
Geum, Jae Heon Zo, Hangman

* 서울대 건축학과 석사과정, Master's Course Student, Dept.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 서울대 건축학과 부교수, Associate Professor, Dept. of Architec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Corresponding author : zohangman@snu.ac.kr)

Abstract

This study aims to reinterpret contemporary urban seaside areas as public spaces and enhance their utility. It examines the publicness of urban seaside spaces, identifying key factors that influence their role in supporting sustainable urban development. By integrating a theoretical review with an analysis of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eaches and adjacent seaside areas, an analytical framework was developed and applied to Gwangalli Beach in Korea. The analysis focused on elements influencing publicness, including public agencies, public interest, openness, and accessibility. Gwangalli Beach was used as a case study to assess its level of publicness and explore the interplay between its physical design and social functions. Results indicate that the publicness of urban seaside areas is shaped by their physical structure, as well as social, cultural, and legal contexts. Enhancing seaside publicness requires improving accessibility, redesigning these spaces to be open and multifunctional, and ensuring equitable access for the publics. Achieving this goal also depends on creating sustainable seaside environments through comprehensive planning by responsible public authorities, avoiding private appropriation of these shared spaces.

키워드 : 공공성, 결정요인, 공공공간, 마스터플랜, 친수공간, 해변, 연안지역, 물리적 구성

Keywords : Publicness, Determinants, Public Space, Master Plan, Waterfront, Seaside, Coastal Zone, Physical Composition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도시의 해변은 도시의 주요한 공공공간 중 하나이다. 이는 Hoyle, Pinder & Husain(1988)이 항구 도시를 사례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도시의 해변이 다른 기능을 요구받는다¹⁾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산업화 이전 해변은 초기 수산업과 일상 생활영역으로 기능하였다. 현대 도시의 해변은,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해운을 통한 교역의 통로가 되었다. 대규모 물자와 사람, 문화가 도시 해변을 통하게 되었고, 이는 해변이 인접 도시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교두보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가 공업화됨에 따라 대량생산, 물류의 대형화를 지원하기 위한 철도시설, 항만, 플랜트 등 대규모 시설이 해변의 경관을 지배하였다. 이러한 폐쇄적 산업시설들이 연안 해변에 방대한 규모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해변은 시민들의 일상과 단절되었다. 근대 이후의 도시

해변²⁾은 휴양공간과 생산공간으로 이분³⁾되었으며, 해변은 일반적인 광장 같은 공공공간과는 다른 특별한 휴양지³⁾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과정에서 ‘해수욕장으로서의 해변’이 현재 해변 공간에 대한 인식의 틀을 구성하였다. 우리 해변이 도시의 일상적 여가공간으로 기능하기보다는 계절적, 일회적 성질이 강한 것도 이에 근거한다(kim, 2012; kim, 2015).

그러나, 탈산업화된 현대도시에서 삶의 질 제고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쾌적한 도시, 일상여가공간을 만드는 데 해변 공간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회적 물놀이를 위한 장소인 해수욕장과, 산업 항구의 이분법적 구분에서 탈피하여, 해변은 도시의 부족한 공공공간, 여가공

1) 해수욕장, 해안, 도심권 해변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 인접 해변’ (이하 도시 해변)이라 한다.

2) 해수욕장을 다룬 문학을 고찰한 Kim(2012)의 연구는, 항구는 로고스적 계몽을, 해변은 로맨스와 내면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3) 국내 해수욕장 풍경을 다룬 Kim(2015)의 연구는 해변을 통시적으로 고찰하며, 해수욕장의 등장부터 일제강점기에 이르기까지 해변의 장소성이 시대적으로 달라져왔음을 밝혔다.

이 연구는 2024년도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융합연구소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음.

간의 기능을 분담하게 되었다. 거주민들에게 해변은 일상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해안선을 따라 형성된 선형의 도시 공원이기도 하다는 점⁴⁾은, 해변을 평면적으로 해석하기보다 다층적으로 읽을 수 있는 도시적 공공공간으로 보아야 함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해변이 계절적 휴양지를 넘어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기능을 최우선시하여 조성된 현재의 해변이 일상적 여가 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해변을 도시적 공공공간으로 보는 관점에서, 해변의 공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연구 대상을 공간적 범위와 공공성에 대한 고찰, 두 차원으로 나누어 병렬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해변을 공공공간으로 보고 장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문헌고찰을 통하여 공간적 범위인 해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하였으며,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일반적 도시 공간과 달리 해변을 대상으로 한 공공성 분석의 선례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하나의 대표적인 해변을 사례로 하여 공공성을 면밀히 분석할 수 있는 틀을 제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1.3 연구의 차별성

Waterfront 계획을 다룬 연구에 비해 해변의 호안, 백사장 등 물리적 구성요소를 해변의 공공공간으로 포함하여 분석한 연구는 비교적 많지 않다. 이 요소를 해변만이 가진 구성요소로 보고, 공공성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하는 것에 본 연구의 차별점이 있다. 해변의 공공성을 분석하기에 앞서, 기존 연구가 도시 해변을 어떤 방식으로 평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해변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많은 연구는 ‘쾌적함’과 ‘환경’을 주요 판단 근거로 지표를 구조화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그 중 도시 해변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은 Recreation과 Conservation을 대부분으로 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Accessibility, Safety 등을 Recreation의 하위 항목으로 제시하였으며, 동시에 환경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여야 한다는 점을 서술하였다. 해변의 질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Beach Quality Index도 인간의 해변 사용에 관련된 Recreational function 항목을 주 항목으로 다루며, 환경 보호를 위한 평가 척도를 제시하였다(McLachlan et al, 2013; Semeoshenkova et al, 2017).

해안 도시의 Waterfront를 분석한 연구는 해변의 물리적 환경의 정량적 평가 뿐만 아니라, 사회·인문적 요소를 복합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Yang(2004)의 연구는 수변

을 물리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도시의 물리적 특징에서 오는 성질을 물리적 요소로, 개방성, 비밀상성, Amenity 등을 정신적 요소로 정하였다. 여기서 정신적 요소로 정의된 개념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인문적 요소나, 심미성, 정체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이들 요소의 하위 항목을 살펴보면 개방성, 심리적 영향, 쾌적성 등으로 개인적 경험에서 오는 정신적 쾌적감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Yang, 2004; Jeong, Kim & Seo, 2011; Kwon & Cho, 2010).

종합하여 보면, 살펴본 연구의 상당수는 쾌적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등의 지표로 정량적 평가를 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정량적 분석만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해변의 사용자 경험과 Waterfront 계획에 관한 연구는, 해변 경험의 특성을 분석에 담아내기 위해 정신적 요소를 분석의 잣대로 사용하는 경향 역시 유의미하게 관찰되었다. 이들 지표, 평가 기준 등을 살펴본 결과, 환경적 개방성, BF나 안전성, 접근성 등의 상당히 많은 요소가 공공성의 관점에서도 유의미한 판단 기준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2. 도시 인접 해변의 이해

2.1 공공공간으로서의 도시 인접 해변

특정인에게 전유되지 않는 해변 공공공간은 극심한 사익 추구의 산물인 현대도시에서 공공성의 또 다른 가능성⁵⁾을 제공한다.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해변의 사용이 집약적이기 때문에 공공공간으로서의 해변과 기반시설로서의 해변이 한 장소에 공존한다. 따라서 해변의 관리는 기반시설로 기능하는 공학적 차원의 관리 뿐만 아니라 해변의 사회문화적 측면을 모두 통섭하여야 하는데, 연안관리법과 이에 근거한 각종 사업들은 공통적으로 해변 공간이 인간과 연안의 공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연안관리법을 개정하고, 기본계획이 시행 중(~2029)에 있다. 이외에도 해변을 관리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준비를 거쳐왔으며, 해변 휴양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수립된 해수욕장 기본계획(1차, 2017)을 수립하며 현재에 이른다. 전술한 일련의 제도적 준비는 해변을 공공성을 띤 공공공간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본 연구의 관점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다음의 내용은 현재 해변을 정의하는 다양한 관점의 용어를 이해하며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물리적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이다.

2.2 도시 해변 관련 용어의 이해

연구에서 ‘도시 인접 해변’으로 정의하고 있는 영역은 관점에 따라 명칭과 그 기준이 다양⁶⁾하다. 그럼에도, 많은 계획 연구에서는 개념적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4) 도시 수변을 다룬 Kwon & Cho(2010)의 연구는, 수변공간이 도시 내 대규모의 개방적 공공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띄고 있으며, 선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5) Kwon & Cho(2010)에 따르면 수변 공간이 도시에서 가치는 첫 번째 가치는, 개방된 공공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6) Haslett(2010)은 영연방의 해안 정책을 사례로, ‘주체에 따라, 또 직면한 문제에 따라 경계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Yang(2004)에 따르면, 이들은 Coastal zone - Waterfront - Waterside 순으로의 공간적 위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Coastal zone은 국토 계획에서 사용되는 위계의 어휘이며 Waterfront는 지구 단위, Waterside는 그보다 하위인 해안선과 그 주변의 계획을 다룰 때 사용하는 단위이다. 정책 행위 차원에서조차 마찬가지로 위계를 가지고 있는데, 직접적 친수공간과 관련한 계획 업무에 관하여는 가장 협의의 단어인 Waterside를 사용한다(Yang,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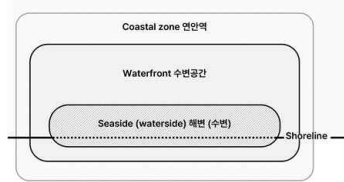


Figure 1. Hierarchy of boundaries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역은 육역과 해역의 경계부이며, 구체적으로 공공공간을 구성하는 요소에 관한 것이므로, Waterside가 말하는 범위와 유사하다. 또한, Waterside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기 위하여 해변을 뜻하는 Seaside라는 일반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더해, Seaside의 명확한 경계를 정하기 위해 ①바다방향으로의 경계, ①모래사장 영역의 법적 성격, 그리고 ③해변 내 기반시설에 대한 이해의 순으로 용어를 고찰하였다.

(1) 도시 해변의 물리적 환경 : 해안선

Seaside 영역의 바다 방향으로의 경계 지점은 해양조사 정보법이 정하는 해안선(shorline)으로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통상 해안선은 육지와 바다가 만나는 지점을 말하나, 그 형상과 위치는 조석과 파랑, 계절 등 외부적 요인에 의한 해수면 변화에 따라 시공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한다⁷⁾는 점을 이해하여야 한다. 여기에서는 육역-해역의 경계부와 물리적 환경을 다루고 있으므로, 해변의 환경 자체를 다루는 지리학, 연안의 인공환경 건설과 관련한 연안공학에서 정의하는 해안선을 비교 종합하였다.

특히, 해수욕장이 위치하는 후빈Backshore은 연안퇴적물의 순환에 의한 해변 변형이 가장 크게 관찰되는 Transition zone에 속한다. 본 연구는 그 중에서도 모래해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직립호안⁹⁾ 등으로 조성된 외해 인공해안선은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이는 도시에서 해안선까지 연속되는 육역의 공공성을 관찰하고자 함이 연구의 목표이기 때문이다.

(2) 법률이 정하는 해변 경계선의 종합

육역 도시와의 경계를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종합하였다. 이를 통해 약최고고정선¹⁰⁾에서 호안이 시작되

7) Waterside는 일반적으로 항만·강호수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수변을 뜻하나, 본 연구에서는 바닷가만을 지칭하기 위함.

8) "...variable width and may also change in time. Delimitation of zonal boundaries is not normally possible." Carter(1988)

9) Vertical Revetment. 호안은 유수에 의한 파괴와 침식으로 부터 직접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방보호 구조물을 말한다.

10) Approximate highest water. 조석관측 결과, 해수면이 가장 높은 때의 육지와 해수면의 경계를 말한다.

는 지점까지로 Seaside의 범위를 정하였다. 이는 통상 해수욕장이 설치되는 후빈의 범위와 유사하나, 같은 범위를 일컬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법률과 정책이 해변 공간의 정의를 각각 다르게 내리고 있음을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첫째로 서로의 입법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며, 둘째로 정책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해양공간계획법과 연안관리법¹¹⁾은 해양과 육역의 경계를 지적공부(地籍公簿)선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근거한 연안정비사업 등은 지적공부선에 의한 해역과 육역의 범위를 따른다. 이에 반해 공유수면법은 바다와 바닷가의 경계를 지적공부선으로부터 해양 쪽으로 더 떨어진 해안선으로 정하고 있어 차이가 나타난다. 여기서 말하는 해안선은 약최고고정선과 같은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바닷가에 인공구조물의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법에서 정하는 범위를 따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공유수면법 상 바닷가를 대상에 포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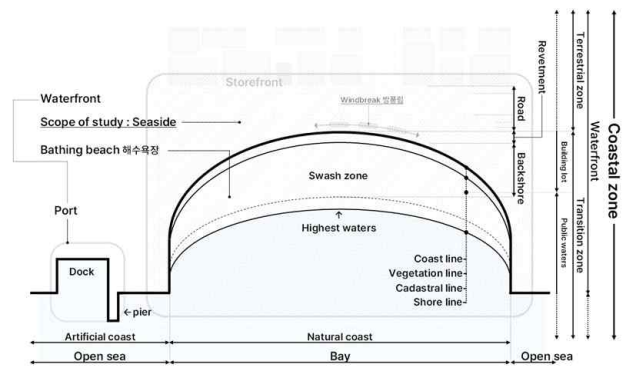


Figure 2. Scope of study : seaside

(3) 해변의 기반시설 : 호안과 도로

해변에는 각종 해양 재난으로부터의 도시 방호를 위한 기반시설이 필수적으로 설치된다는 점에서 일반적 내륙 도시 공간과는 다르다. 이러한 기반시설을 도시 해변을 구성하는 중요한 물리적 요소로 보는 관점에서, 재난 대응을 위한 호안과 도시기능을 위한 도로를 연구의 대상에 포함하였다. 이에 더해, 도로 상에서의 공공성 발현을 관찰하기 위해 건축물 전면부Storefront를 포함하였다.

위에서 말한 기반시설에는 방파제, 호안, 모래 포집시설 등이 있다. 우선,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해변의 호안은 방제시설 내 방조시설에 해당한다. 이 방조시설은 방조제 관리법이 정하는 것 외에도 항만법, 어촌어항법에 따른 방조제를 모두 이르는 만큼, 일반 도시공간의 Boardwalk를 계획할 때와는 다른 접근이 요구된다. 호안 구조물의 형상을 비롯한 구조, 설치 기준, 관리 방안이 엄밀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면, 대부분의 해수욕장에 설치되는 호안은 그 형상에 불문하고 방파제 기능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임을 알 수 있다.

11) 지적공부선에서 육지로 500m 범위까지를 '연안 육역'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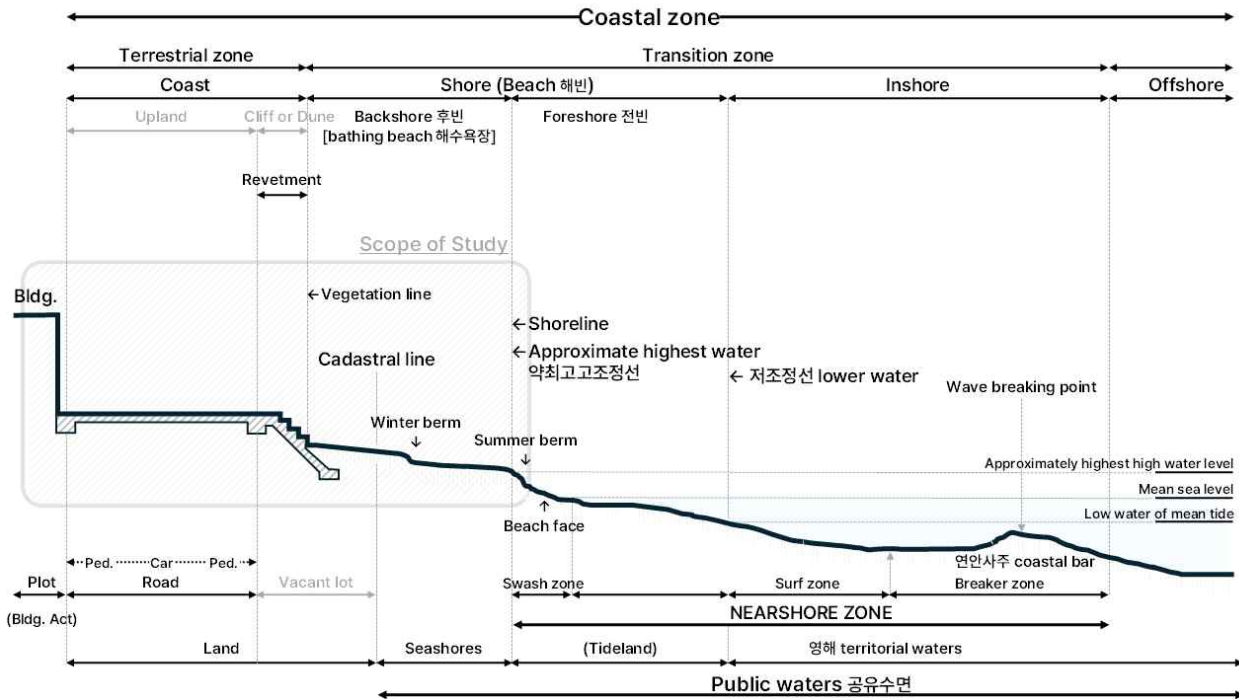


Figure 3. Section composition of seaside

2.3 소결

해안선-후빈-기반시설의 순으로 물리적 범위를 구체화하며 다양한 관점에서의 해변 관련 용어를 고찰하였다. 이는 많은 연구에서 각각 다루는 학제간 용어들을 건축의 관점에서 종합하여 소개하여 이해를 높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앞의 내용을 종합한 Figure 3은 4개 연구의 내용과 국내 6개 법령에서 정의하는 해변 공간 관련 어휘를 정리한 것이다(Carter, 1988; Haslett, 2010; Coast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1984; Park & Song, 2014) 환경, 법률, 기반시설의 관점에서 본 해변 공공성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완충지대로서의 해변의 유연한 경계

해변은 해역과 육역을 포괄하는 유연한 하나의 공간이다. 이때 해변 환경을 구성하는 가장 기초적 토대인 해변 환경의 유연한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사용할 수 있는 땅’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관리할 수 있다. 또한, 도시 해변은 환경적 관점에서 바다와 육지를 직접 접촉하는 전이-완충지대로, 내륙 도시가 가질 수 없는 독특한 풍광의 공공장소¹²⁾를 제공하는 것이다.

(2) 도시 해변의 사적 전유 방지 필요성

해안선과 공유수면의 관리는 연안개발 증가와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해변, 바닷가의 지적이 부정확하거나 불법적으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로 지적된다. 이는 Kim(2008)에 의하면, 측량

오류와 토지조사 상 누락으로 인한 것이다. 이는 단순히 정보의 교정 측면을 넘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해변의 무분별한 사적 추구를 억제하기 위해서 개선되어야 한다. 해변을 도시의 공공재, 공유하는 공간으로 보고, 누구에게도 사적으로 전유되지 않는 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3) 기반시설로서의 한계 극복

해변 공공공간을 계획할 때에는 기반시설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육역과 해역의 완충지대라는 점이, 환경적 변화와 재난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기반시설, 특히 호안 등은 방재 기능을 최우선으로 설계되기 때문에 보행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다.¹³⁾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과 그 주변 공간의 공공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3. 공공성의 이론적 고찰

3.1 공공성의 개념과 다원적 의미

공공성이라는 어휘는 공평할 공(公)과 함께 공(共)의 합성어로, 표준대국어사전이 정하고 있는 사전적 의미는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의미한다. 공공성은 사전적 의미 외에도 분야에 따라 다르게 정의되고, 그 용례 역시 폭이 넓으나, 공통적으로는 ‘한 특정인이나 사적 집단¹⁴⁾이 아

¹²⁾ Park & Song(2014)는 이러한 해변 공간을 “육지와 해양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지질학적 환경 사이의 물질과 에너지 순환으로 인한 역동적인 공간”으로 정의하였다.

¹³⁾ Kwon & Cho(2010)도 치수시설의 위압감을 지적하였다.

¹⁴⁾ Public의 어원인 res publica는 가정보다 넓은 공동체를 의미하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적인 것보다 공적인 일을 우월한 것으로 보았다. Arendt(1998)는 이를 두고 사적인 것을 뜻하는 private는 공적 영역에서 발휘되는 인간적 정치적 능력의 결핍의 의미를 함의하고 있다고 보충하였다.

Table 1. Preceding studies on publicness in architecture

Researcher	Object	Definition of Publicness	Element
Jeong(1994)	Exterior space of building	The architectural attitude toward common, collective, open publicness	Openness(공개 여부 및 그 정도, 公), Accessibility(개방도 및 접근도, 開), Connectivity(연결도, 共)
Lee(1998)	Office building & Privately owned public space	Open attitude relevant to everyone, that is not personal	Accessibility(접근성), Openness(개방성), Connectivity(연계성), Amenity, Usage(이용)
Cha & Koo(2004)	Interface space of buildings' ground floor	Enhancing urban amenities, connectivity, openness, and improving perceptibility and accessibility	Openness(개방성), Accessibility(접근성), Connectivity(연계성), Amenity(아메니티)
Youm, Cho & Sim (2008)	Publicness theory	Through architecture, allowing private individuals to form and invigorate a 'public', to enhance fairness, justice, and discursive publicness	Accessibility(접근성), Connectivity(연계성), Openness(개방성), Amenity(쾌적성) (건축적 공공성 부분 발췌 재정리)
Lee & Ha(2010)	Open space of Mix-used building	Facilitating smooth interactions, ensuring equitable and fair use of architectural spaces by all	Accessibility(접근성), Amenity(쾌적성), Openness(개방성), Connectivity(연계성), Convenience(편의성)
Kim & Kim(2012)	Participation of citizen	It addresses how spaces physically relate to people, posing a question of spatial engagement.	Common(공동), Accessibility(접근성), Publicity(개방성), Public agency(공적주체)
Yu(2021)	Public park	Instead of interpreting the beneficiaries of actions, it varies interpretations based on sociopolitical contexts	Public agency(주체), Public interest(이익), Procedural publicness(절차)

년 사회 구성원 전체에 관련됨'의 의미를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행정학을 비롯한 많은 학문이 공공성을 다루고 있으나 공공성 개념의 정의와 연구의 방법이 모두 다른데, 이는 Paik(2007)에 따르면 각각의 학문 분야에서 공공성이 기여할 수 있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는 대표적으로, So(2003), Lim(2003), Paik(2007) 등의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하여 공공성의 본래적 개념을 규정하기 위한 연구를 한 바 있다. 이들은 공공성의 개념이 맥락에 따라 변용됨을 전제하면서도, 그 특징을 세분화하고 보편적 의미를 추출하고자 하였다.

3.2 도시건축에서의 공공성 선행연구 고찰

도시건축 분야에서 공공성 논의는 Kenneth Frampton이 Hannah Arendt의 공공성 개념을 건축에 소개하며 담론으로 떠올랐다(Kim & Kim, 2012). 우리나라의 도시건축 분야로 좁혀 보면, 1990년대 말 건축적 공공성이라는 어휘로 소개되어, 내부·외부, 공·사·공·민과 같이 대립된 것을 중재하는 성질로서 공공성이 연구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다양한 차원의 공공성 담론과 결합되어 논의의 장을 넓혀 왔으며, 도시적 관점에서는 건축물과 도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 이어졌다. 특히 대형 건축물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연구, 또는 도시공간의 공공성 제고를 위한 공공공지 등의 정책 개발을 위한 도구로 연구되었다. 이후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며 관련 연구의 수가 늘어나며 본격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더해, Youm, Cho & Sim(2008)의 연구는 도시와 건축의 건립 과정에서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하여야 한다는 참여적 측면을 제시하였다. 시민참여 사례를 연구한 Kim & Kim(2012) 이후의 비교적 최근의 연구는 공적 주체와 공동체 내에서의 담론과 절차적 공공성까지 논의가 발전하여 현재에 이른다. 이상을 종합하여 보면, 건축 분야에서의 공공성은 물리적 분석에서 시작하여 시민 참여, 공적 주체와 소유에 관한 연구까지 다변화하고 있다. (Table 2) 그 과정

에서 공공성이라는 어휘는 이미 보편적인 것으로 자리 잡아, 학술적 담론을 넘어 실천을 위한 제도¹⁵⁾에 공공성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성의 개념이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연구마다 그 성질을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지표화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모호한 공공성의 개념을 실제 건축적으로 유효한 담론으로서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럼에도, 모호한 개념으로 인해 공공성의 이론적 원형을 제공하는 사회·윤리적 측면이 퇴색되고, 계층 구조의 오류가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상위와 하위 항목의 세부 범주가 혼용되는 경우 공공성 판단 자체의 엄밀성을 잃을 것이 우려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학적 측면에서 어떤 해변이 아름다운가를 판단하는 기준을 따르는 것보다 그것이 공적 구조, 목적 등에 더욱 부합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 틀을 실험해보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Table 2. 4 determinants of publicness

Elements from Preceding studies	Determinants
Arendt(1998) being-in-public, the world-in-common	Authority
Saito(2009) Open, Common, Official	
Lim(2003) Agency, The public, Officiality, Public interest, Accessibility, Publicity	Public Interest
So(2003) Group affairs, Authority, Government, Non-exclusiveness, Altruistic interest	→ Openness
Paik(2007) Governmental, Political, Open, Public interest, Publicly shared, Fairness, Human rights	
Park & Shin(2020) Commonness, Inappropriability, Legal authority, Public citizenship, Openness, Public discourse, Public interest	Accessibility

¹⁵⁾ 건축기본법은 건축의 공공성 실현을 목표로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공공건축물(2009)와 공공건축가(2019) 등의 제도 상의 실천적 장치가 시행되고 있다.

3.3 공공성 결정요인 도출

기존 공공성 관련 연구를 고찰하여 해변의 공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공간적 특성 뿐 아니라, 운영과 목적 등을 폭 넓게 가늠할 수 있는 자를 만드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Table 3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도출한 ‘공공성 결정요인’이며, 각 결정요인의 정의와 하위 항목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Authority 권위

권위는 행위 주체의 공성과 그 주체가 함의하는 법률적인 권위를 의미한다. 그것의 평가는 운영의 주체가 공적 주체로서 신뢰¹⁶⁾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충분히 법률적으로 지지되고 있는지에 따르는 것으로 하였다 (Park & Shin, 2020; So, 2003).

Table 3. Classification of determinants by authority

	Determinants	Sub-category
Authority	Agency	Public accountability
	Legal authority	Legally designated

(2) Public Interest 공익성

공익성은 지나친 사익 추구를 억제하고 공동체 구성원에게 두루 인정된 공통 이익을 목적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에 의한 비전유적 특성을 가진다. 한정된 재화와 분배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권의 문제¹⁷⁾ 역시 해변의 공공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지점일 것으로 보인다

Table 4. Classification of determinants by public interest

	Determinants	Sub-category
Public Interest	Non-excludability	Operation of Public space
	Non-rivalry	Inappropriation of operator

(3) Openness 공개성

공개성은 행위와 정보의 개방성, 공론 영역 내 소통을 통한 결정 과정에의 참여를 의미한다. 건축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개방·투명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으나, 여기서는 물리적 개방과 그 형식보다, 운영적 측면에서의 개방성과 정보의 공지성에 중점을 두어 분류하였다. 공개성을 확보하기 위해 형식화된 절차가 있음에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점이 지적되는 만큼, 공중의 자발적 참여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Paik, 2007; Cho & Hong, 2013).

16) So(2003)에 의하면, 권위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권력의 의미를 넘어 Hegemony와 연결되는 개념이다.

17) 공유수면에 영구적 건물을 지어 사적으로 전용하는 사례가 이슈로 부상하였다. Ko(2014)는 “공과 사, 공공영역과 시장영역의 경계를 다루는 만큼 늘 경계의 문제를 지닌다.” 고 하였다.

Table 5. Classification of determinants by openness

	Determinants	Sub-category
Openness	Openness	Openness
		Multi-purpose
		Procedural publicness
	Publicity	Publicity (of information)
		Legibility

(4) Accessibility 접근성

접근성은 공공재로의 접근이 공중 모두에게 차별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협의인 물리적인 접근성을 넘어, 사회적 혜택이 계층, 이익집단 등에 관련되지 않고 누구에게나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을 사회적 접근성과 물리적 접근성으로 분류하였다. 편의성, 안전성, 연결도와 같은 일부 항목은 사회적 접근성의 하위요소에 포함하여 평가토록 하였다.¹⁸⁾

Table 6. Classification of determinants by accessibility

	Determinants	Sub-category
Accessibility	Social access	Convenience
		Safety
		Mobility rights
	Physical access	Connectibility
		Continuity for Pedestrian
		Accessibility of beach

Table 7은 위를 종합하여 해변의 공공성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의 틀이다. Table 2의 8개 연구를 중심으로 건축에서의 공공성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2장에서 도출한 해변 환경을 권위, 공익성, 공개성, 접근성 4개 범주로 분류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성의 본래 뜻에 더욱 가깝게 판단 기준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수의 연구를 참고하여 지표간 위계를 재정립¹⁹⁾하였다.

4. 공공성 관점에서의 광안리 해변 분석

4.1 분석 대상 개요

도시와 바로 맞닿아 공공성 분석이 필요한 대표적인 해변을 대상으로 하였다. 관광지화된 주요 해수욕장 중, ‘도시 인접 여부, 휴양지가 아닌 생활 도시인지의 여부, 도시와 접한 길이, 체류인구의 수’의 4가지 기준을 고려하여 광안리해변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광안리해변은 2014년 중상향을 골자로 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인한 고층 고밀 개발의 후과를 관찰할 수 있고, 인근 주거지역의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 분석이 유의미한 시점이다. 또한, 2023년 해변재정비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으며, 후속 사업과 연안정비가 진행 중이

18) 일부 연구에서는 해당 요소를 주 항목으로 두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접근성이 물리적 접근 뿐 아니라 사회적, 공동체적 의미를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 ‘사회적 접근성’으로 분류하였다.

19) 건축적 공공성에서 자주 사용되는 개방성은, 공지성과 같은 위계로, 더 큰 의미의 공개성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였다.

Table 7. Framework of publicness determinants

	Determinants	Sub-category	Criteria	Specific Elements	Evaluation [Public-Private]
Authority (권위)	Agency (주체)	Public accountability	Operation by Public	Operation subject	Public/ Private consignment/ Full-private
	Legal authority (법률적 권위성)	legally designated	Applicable Law	Subtlety of administrative act.	Local gov. ordinance/ Law & action/ N
				Legal support for specialization	Masterplan/ specific zoning ordinance
Public Interest (공익성)	Nonexcludability (비배제성)	Operation of Public spaces for the publics	Operation of Public space	Public opened	Free/ Paid (exclusive)
			Operation of Facility	No Profitability-first	Free/ Paid
	Non-rivalry (비경합성)	Inappropriation of operator	Temporarily occupied	Public opened	Free/ Paid (exclusive)
				Private construction	Free/ Paid
Openness (공개성)	Openness (개방성)	Openness	Opening Hours	Public space	Always/ seasonal/ weekends/ temporary
			Visual Cognitive	Facility	Always/ seasonal/ weekends/ temporary
		Procedural Publicness	Flexible capacity	Public space	Clear awareness from roadway
			Open discourse	Facility	Clear awareness from roadway
			Autonomous Orgnz.	Civil Society Organization	Special event/ permanent event
	Publicity (공지성)	Publicity	Information	Open information (disclosure)	Y/N (both locals and visitors)
				Promotion of information	Y/N
		Legibility	Way-findings	Distinctive signs and maps	Y/N
			Signage	Appropriate placement	Y/N
			Place-identity	Symbolic image	Y(Land mark/ public designs)/ N
Accessibility (접근성)	Social access (사회적 접근성)	Convenience	Convenience facility	(legal) Required facility	Toilet/ changing room/ shower room
			Rest facility	Appropriate placement	Y/N (equitable distribution)
		Safety	Urban safety	Bench and sunshade	Y/N
			Coastal safety	Pedestrian safety (traffic)	(Bollard, traffic lights, hand rails)
		Mobility rights	Consideration for trans. disadvantaged	Beach Safety (life saving)	Full/ Facility only
			Mass-transit	Revetment and wave resistance	(Non-slip, anti-overlapping wave)
	Physical access (물리적 접근성)	Connectibility	Block	Wheelchair ramp to beach	Y/N (spacing of ramps beach act)
			Plot	Facility for disabled	Y/N (accessible toilet in public)
			Roadway	Diversity of transportation	Subway/ Bus/ only personal vehicle
			Promenade	Distance from drop-off	250m/ 500m/ 1km (fr. bus stop and lot)
		Continuity (for Ped.)	Obstacles on promenade	Permeability of block	Deep-narrow lot
				Density of block	Low/ High
		Accessibility of beach	Overcoming revetment	Usage of plot	Public/ Private
				Diverse access	Width of Main roadway
			Separation of pedestals	Separated/ N	
			Width of boardwalk for ped.	Wide/Narrow (wider than 3m, 10 feet)	
			Curb height	Low/ high	
			Walking obstacle	(Plant Box, warehouse, utility pole)	
			Height (between upland-revetment)	Y(square/ramp/stairs)/ N(vertical/ wall)	
				Number of access route (beach)	Y/N

다. 따라서 해수욕장과 테마거리 및 해변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인근 상업지역의 Storefront까지를 대상지로 하였다. 2장 분석 결과인 Figure 3을 적용하여, 해변에서도 이용 행태를 가장 잘 관찰할 수 있는 호안부 전후를 중점적으로 관찰하였다. 분석은 항공사진과 타 선행연구 등의 문헌고찰에 더해, 3차례의 현장조사를 종합하였다.

광안리해변은 광안해변으로 인해 도시와 해수욕장이 단절되어 있다. 광안해변로는 Storefront 층의 2-4m 보도와 2-4차선의 차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바다 쪽으로는 별도 사업을 통해 조성된 6-7m 폭의 Boardwalk가 있다. 모래사장과의 단차는 500-700mm로, 호안은 계단식으로 조성되어 있다. 이 범위는 2002년 조성된 해변테마거리와 해수욕장, 수상레저구역 즉 모래사장을 포함하는 구역으로, Figure 4와 같다. 이 영역을 공공성 분석의 틀에서 분석하였다.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4.2 공공성 관점에서의 분석

(1) Authority 권위

① Agency 주체

해변의 운영 및 관리 주체는 보통 기초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되어 있으며 광안리해변의 경우 부산시와 수영구이다. 지역번영회 등이 자율적으로 관리토록 한 간이 해수욕장에 비해 공적 주체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자체와 경찰, 해수욕장협의회 등의 유관기관이 합동 근무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해수욕장 개장과 관련한 모든 공공업무, 안전관리와 기상 대처 등을 담당하여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그러나 여름 피서철 해수욕장의 일부 기능을 청년연합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수상레저기구 운용과 피서용품 대여영업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이다.

② Legal authority 법률적 권위성

해변에는 해수욕장 기본계획과 관리운영계획 등이 수립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해변만의 특성에 맞는 더욱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법률적으로 지정된 해수욕장 중 일부만이 지자체 조례²⁰⁾로 세부 지원을 받고 있어 미흡함이 있다. 광안리해변은 수영구 해수욕장 관리 조례에 의한 제도적 지원 안에 있으며, 인근 상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인근 해운대 해수욕장 등과 비교하여 관광특구법의 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는 등, 개선해야 할 여지가 있다.

Table 8. Application of analysis : by Public Authority

Authority		Composition			
Criteria	Specific elements	St	Bd	Rv	Sn
Authority	Operation subject	×	○	-	○
Applicable Law	Subtlety of administrative action	○	○	×	○
	Legal support for specialization	○	○	-	○

St:Storefront Bd:Boardwalk Rv:Revetment Sn:Sands



광안리해변의 모래사장과 테마거리 보도 환경은 여러 층위의 조례, 환경개선 사업의 대상으로서 충분한 신뢰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호안은 테마거리 조성 후 후속 계획 없이 적절한 관리를 받지 못 하여, 훼손된 채 방치된 구간이 다수 관찰되었다. (Table 9)

(2) Public Interest 공익성

① Non-excludability 비배제성

비배제성²¹⁾의 판단은 해수욕장과 공공시설²²⁾이 수혜자의 차별이 없이 공익적 목적에 따라 운영되는가를 판단하였다. 첫째로, 해변과 시설에 접근하고 물놀이를 하는데 방해 요소가 없었다. 둘째로, 광안리해변은 요금을 징수²³⁾하지 않고 개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샤워실과 기타 편의시설은 유료로 제공하고 있었다. Table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2개소의 유료샤워실과 8개소의 간이 무료 샤워실을 차등 운영하고 있었다. 사익 목적으로 입장을 제한한 구역은 없었다.

Table 9. Current of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Public int.

Category	Analysis	
	Keymap	Existing condition of site
Current		
Content	Shower rooms(paid option)	Warning signages

20) 제1차 해수욕장 기본계획은 해수욕장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서 조례 운영을 지원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21) 공공재의 구성원리 중 하나로,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재화의 소비에 배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22) 여기서 시설은 해수욕장법이 정하는 필수시설인 공중화장실, 샤워실, 탈의실을 다루었다.

23) 해수욕장법 제21조는 해변 입장객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② Non-rivalry 비경합성

해변이 특정 목적으로 운영될 때, 이로 인해 공중의 자유로운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지를 판단하였다. 공유수면의 무허가 매립 또는 건축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수상레저를 위한 일부 해변에서의 해수욕이 금지되어 있었다. 이는 비경합성의 원리에는 어긋날 수 있으나, 안전을 위한 조치인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해변 운영과 관련한 가설건축물이 공유수면법 상 바닷가에 지어진 경우가 발견되었으며 이 시설물들이 가로에서의 해변 조망을 방해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Table 10. Application of analysis : by Public interests

Public interests		Composition			
Criteria	Specific elements	St	Bd	Rv	Sn
Operation of Public space	Public open (physically)	○	○	○	○
	No Profitability-first	×	○	○	○
Operation of Facility	Public open (physically)	○	○	-	○
	No Profitability-first	×	○	-	×
Inappropriability of operator	Benefit distribution (events)	×	○	○	○
	Private construction	×	○	○	○

St:Storefront Bd:Boardwalk Rv:Revetment Sn:Sands

Table 11을 종합하여 볼 때, 사익적 목적으로 운영되는 Storefront의 공익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해변 모래사장은 공적 주체에 의해 운영됨에도 불구하고, 샤워실, 탈의실 등 일부 핵심시설이 유료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비배제성 측면에서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3) Openness 공개성

① Openness 개방성

해변은 안전사고를 우려하여 일몰 이후로 출입을 금하나, 그 외의 시간은 모두 개방하고 있다. 그러나 가로에서 해변을 조망하는 시지각적 개방성에는 문제점이 발견된다. 부대시설과 창고로 인해 가로에서 해변을 조망할 수 없는 구간이 7곳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행사 시에는 해변을 다목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a) temporary storages b) facilities c) seating with shrubs
Figure 4. Low openness due to faci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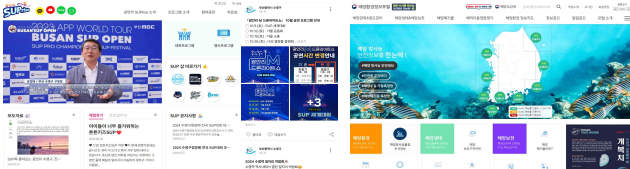
특히, 부산불꽃축제 같은 주요 행사 때는 광안해변로도 차량을 통제하여 넓은 공공공간으로 확장 이용한다. 근래에는 ‘광안리 차 없는 거리’가 활성화 되고 지역 주민 주도의 지역행사가 개최되는 등 다목적적이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개방된 해변으로 변화하고 있다.



a) community event b) temporary stage c) car-free street
Figure 5. Multi-purpose beach(©BUSAN.com, Busan sports council)

② Publicity 공지성

부산시에서는 공식 홈페이지와 SNS를 통하여 관광·이용정보를 게시하고 있다. 특히, 수영구에서 특성화하고 있는 해양레저스포츠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해수욕장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시민이 해변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해양환경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a) events infor. on a website b) environmental infor.
Figure 6. Examples of Official websites

Legibility 역시 다른 장소와 해변을 구분해주고, 식별성을 높여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Way-finding signage와 상징조형물의 유무 그리고 이들의 적절한 배치가 중요한 판단 근거이다. 그러나 현재 광안리해변에는 바닥 페이빙과 안내표지판, 교통시설물 등이 각각 다른 시기에 설치되어 일관된 가독성과 식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그 일례로, 광안해변로를 기준으로 양측의 가로가 다른 디자인과 바닥 재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광안리해변데마거리(2002)가 주변 도시와 해변을 통합하지 못한 상태에서 파편적으로 개별 공간을 조성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해변 Boardwalk에 14개의 상징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으나, 통일된 주제없이 설치되었으며, 17년이 지난 현재 노후한 채로 방치되어 있다. 이들은 서로 간섭되는 위치에 복잡하게 중복 배치되어, 식별성과 상징성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태이다.

종합하여 볼 때, 전체적으로 Storefront의 공개성은 떨어지고, Boardwalk과 모래사장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Bd, Sn 영역이 넓은 개활지를 활용한 다목적 행사를 개최하는 장소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길찾기 안내판과 상징 조형물은 Storefront와 Boardwalk 모두에서 미흡하게 설치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부 조형물이 모래사장에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으나, 조사 결과 이는 모두 임시 설치물로, 해변 자체의 장소적 정체성과 식별성을 만드는 것에는 기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Table 11. Current of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Openness

Category	Analysis	
	Keymap	Existing condition of site
Current		
Content	Scattered sculptures without a theme	Mutual interference of ground structures

Table 12. Application of analysis : by Openness

Criteria	Specific elements	Composition			
		St	Bd	Rv	Sn
Opening hours	Public space	○	○	○	○
	Facility	○	○	-	×
Visual cognitive	Public space	×	○	○	○
	Facility	×	○	-	○
Flexible capa.	Transition to temporary settings	×	○	○	○
Open discourse	No qualification (for participation)	×	○	×	○
Auto. Org	Civil Society Organization	×	×	○	○
Information	Open information (disclosure)	-	○	-	○
	Promotion of information	-	○	-	○
Way-findings	Distinctive signs and maps	×	×	-	-
Signage	Appropriate placement	×	○	-	-
Place-identity	Symbolic image	×	×	×	○

St:Storefront Bd:Boardwalk Rv:Revetment Sn:Sands

(4) Accessibility 접근성

① Social accessibility 사회적 접근성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의 확충 뿐 아니라 고르게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분배되었는가의 여부도 평가의 대상이다. 광안리해변은 해수욕장법이 정하는 필수시설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그 편중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예를 들어, 짐보관소와 관광안내센터, 여름행정봉사실, 여름 파출소, 공중화장실, 생활문화센터, 119구조대가 모두 한 건물에 모여 있다. 이는 수영구 소유의 건물을 이용하여 관리의 용이함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짐보관소와 같은 방문객 편의시설은 접근성 측면에서 분산 배치할 필요가 있다.

안전성의 측면에서는 해변으로서의 특성이 두드러진다. 광안리해변은 Storefront 측 보도의 구배가 가파르게 조성되어 있고, 각 건물의 전면부 역시 500-600mm 정도 도로에서 높게 건축되어 있다. 이는 휠과 위험과 물빠짐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계단식 호안을 목재 데크로 마감한 구간에서 마감재 탈락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보행자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으로, 내해염성 마감재로의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블라드가 차도와의 경계가 아닌 부적절한 곳에 위치한 것이 많았다. 이는 불꽃축제 등 어두운 야간 행사 중 보행자에게 위험이 될 소지가 있어 보인다.

Table 13. Current of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Accessibility

Category	Analysis	
	Keymap	Existing condition of site
Current		
Content	Current public toilets	Ent. of a public toilet





a) raised deck in front of hotels b) decks of commercial buildings c) flood barriers

Figure 7. Raised decks in front of buildings

이동권 관점에서는 이동취약²⁴계층을 위한 시설을 평가하였다. 광안리해변의 대중교통 접근성은 매우 높으나, 해변에 접한 광안해변로에는 일반 시내버스가 경유하지 않아, 하차 후 해변까지의 접근성은 거리에 비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안역에서부터는 680m, 카페거리입구정류장에서부터는 160m 이상의 거리를 접근해야 해변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점은 광안리해변의 대표성을 고려하면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 해변으로 내려가는 횡차 경사로는 11개소로 적절히 확충되어 있다. 또한 백사장 위 해수면 근처까지 횡차어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포장 진입로 2개소가 상시 설치되어 있다.

Table 14. Current of the major factors influencing accessibility

Category	Analysis	
	Keymap	Existing condition of site
Current		
Content	Ramps for wheelchair	Beach access pathway

② Physical accessibility 물리적 접근성

첫째, 광안리해변 인근의 도시 블록은 해변과 평행한 장방형으로 시각적 투과성이 낮다. 이에 더해 해변으로 향하는 골목길 양측이 고층 건물이 지어져 시각적, 심리적 개방감이 떨어진다는 점도 접근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둘째, 해변 필지 대부분이 일반상업지역으로 고밀 개발되어있으며, 광장이나 공원이 도시 블록 내 위치하는 타 해변과 달리 광안리해변 ‘만남의 광장’은 모래사장 쪽으로 치우쳐 있다. 이는 행사·축제와 판매점들 간의 적극적 연계를 어렵게 하여 광장, 공공공지의 효용성이 떨어짐을 의미한다. Figure 10을 보면, 해변을 따라 대규모 상업시설이 줄지어 있으나, 광장이나 큰 공지는 전혀 없음²⁵을 알 수 있다(Choi & Kim, 2013; Rhee, 2003).

24) 장벽 없는 해수욕장 (인증제) 시범사업이 추진 중이다.
25) Lee & Jeong(2001)은, 광안리해변은 공공재로서의 수변공간으로, 공공성이 높은 용도를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a) commercial area b) current high-rise buildings

Figure 8. Urban morphology and permeability

실제로 크고 작은 대부분의 행사가 도로를 건너 해변 모래사장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가로변 판매점에서 음식을 가지고 나와 즐길 만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로, 보차분리는 적절히 되어 있으나 해변 도로의 통행량이 많아 연결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또한, 차도와 보도 사이의 단차, 불필요한 위치에 배치된 블라드와 조형물, 전신주 등 보행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문제점으로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해변으로의 직접적 접근성은 호안의 구조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광안리해변의 호안은 광장식, 계단식으로 건설되어 보행자가 직접 접근이 가능한 구조로, 직립호안에 비해 원활한 해변 출입을 유발하고 있었다.

또한, 해운대해변(9개소/1.6km)과 영일대해변(9개소/1.9km), 속초해변(5개소/1.2km)등 입지가 유사한 도시 해변에 비해 광안리해변(14개소/1.6km)은 백사장과 직선으로 직접 연결되는 진입동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 usage of bldgs b) dining spots near seaside

Figure 9. Beach as a commercial area without a plaza

Table 16를 종합하여 보면, 모든 영역에서 편의시설의 적절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St 영역에서는 편의·휴게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St 측 보도는 통로의 기능만을 수행하고 있었다. Bd 영역도 보도 단차, 부적절한 블라드 등으로 인해 보행연속성이 낮았다. 또한, 건축물로 인한 접근성과 관련이 있는 St 영역 내 Block과 Plot은 모두 접근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해변 직접 접근 측면에서는 양호한 현황을 보였다. 광안리해변은 전체 호안을 계단식 호안으로 조성하고, 법이 정하는 횡차 경사로 간격을 충족하고 있다. 또한, 해변의 길이 대비 해변으로의 접근로 개수가 많아 물리적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Table 15. Application of analysis : by accessibility

Criteria	Accessibility	Composition			
	Specific elements	St	Bd	Rv	Sn
Convenience facility	(legal) Required facility	×	○	-	○
	Appropriate placement	×	×	-	×
Rest facility	Bench and sunshade	×	○	×	○
Urban safety	Pedestrian safety (traffic)	×	○	-	-
Coastal safety	Beach Safety (life saving)	-	-	-	○
	Revetment and wave resistance	○	-	○	-
Consideration for trans. disadvantage	Wheelchair ramp to beach	-	-	○	-
	Facility for disabled	×	○	×	×
Mass-transit	Diversity of transportation	-	-	-	○
	Distance from drop-off	-	-	-	×
Block	Permeability of block	×	○	-	-
	Density of block	×	○	-	-
Plot	Usage of plot	×	×	-	-
Roadway	Width of Main roadway	-	○	-	-
Promenade	Separation of pedestals	○	○	-	-
	Width of boardwalk for ped.	×	○	×	-
Obstacles on promenade	Curb height	×	×	-	-
	Walking obstacle	×	×	○	-
Overcoming revetment	Height (between upland-revetment)	-	○	○	-
Diverse access	Number of access route (beach)	○	○	○	○

St:Storefront Bd:Boardwalk Rv:Revetment Sn:Sands

4.3 소결

첫째, 공적 주체가 해변을 운영하고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광안리해변은 주 관리청인 수영구를 중심으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등 공적 기관들이 운영·관리하고 있어, 번영회에서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해변에 비해 공적 신뢰도가 높다. 또한 법정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지자체 조례와 세부실행계획을 통해 법률적으로 지원되고 있었다. 이러한 세부적 지원으로 인해, 법률적 권위성을 획득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모래사장의 사적 전유를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 이는 선형의 한정된 공간인 해변의 공공성을 높이고 최대의 활용을 하기 위함이다. 해변은 인근의 매립, 개발로 인한 영향을 쉽게 받으며, 그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 따라서 사익 목적으로 해변을 매립하거나 무분별하게 건축물을 짓는 행위는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해변 조성을 위한 마스터플랜이나 지구단위계획은 공공성을 고려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다.

셋째, 공개성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하다. 모두에게 공개된 해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해변과 시설의 개방, 시지각적으로 개방됨에 더하여, 개방적 운영이 중요하다. 광안리해변의 경우, 인근의 부대시설로 인한 시지각적 개방성의 한계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차도의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여러 시민 참여 행사를 개최하는 등, 공중의 자유로운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정보의 공지성 측면에서도 장단점이 동시에 관찰되었다. 해변 내 안내표지판과 상징물 등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노후화하고 일관된 형식의 가독성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Legibility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된다.

넷째, 해변 기반시설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기반시설은 때로 이동취약계층과 공중의 해변 접근에 방해요인이 된다. 따라서 돌체나 호안 등의 기반시설을 보행자 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광안리해변은 도로와 모래사장 사이의 높이차를 계단식 호안으로 극복하고 있으나, 대중교통 하차 후 좁은 골목길을 도보로 지나 해변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은 취약한 지점이다. 해변으로 향하는 루트에서 마주하게 되는 고층 건물들과 교통체증은 해변의 물리적 접근성을 저하하는 요인이 된다. 이는 해변으로의 접근성이 특정 한 부분만을 개선해서는 달성되지 않는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도시 인접 해변을 여름철 휴양지로만 인식해온 기존 시선에서 벗어나서, 사시사철 도시민의 일상적 공공공간으로 보고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하였다. 공공성 관련 문헌고찰을 통하여 4개 핵심 구성요소를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광안리해변에 대한 현황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 공간적 범위인 해변의 물리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을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다학제간 용어를 도시건축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일반적인 도시 공간과 다른 해변이 가진 장소적 특징을 도출하였다.

3장에서는 내용적 범위인 공공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였다. 문헌고찰을 통하여 본래 공공성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 의미를 추적하고, 여러 분야에서 공공성이 어떤 맥락에서 사용되는지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판단 기준과, 도시 해변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종합하여 해변의 공공성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이후 국내 도시 해변의 대표적 사례인 광안리해변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상지를 방문 조사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공공성의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정량적 현황 조사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포착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 방향을 제안하였다.

광안리해변은 우리나라 대표 여름철 휴가지에서 나아가, 시민의 일상 여가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광안리해변 테마거리 재정비 마스터플랜’이 갖 종료된 시점에, 본 연구가 후속 사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해수욕장 평가체계 개선에 공공성 관점에서의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추후 단계적으로 수행될 해변 개선 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광안리해변의 해변 하나의 사례만 분석하였으므로, 타 해변과의 비교 분석이 부재하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이다. 추후 후속 연구에서 시야를 확장하여 여러 해변을 비교분석하고, 나아가 구체적인 개선 방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1. Arendt, H., (1998). *The Human Condition*.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1-36, 194, 204
2. Carter, R. W. G. (1988). *Coastal Environments : An Introduction to the Physical, Ecological, and Cultural Systems of Coastlines*. University of Ulster, Coleraine.
3. Cha, H. N., & Koo, J. H. (2004). A Study on the Transition Zone of Hihn-Rise office Buildings on Teheranno Street for Improving Publicity. *Journal of Korea Planning Association*. 517-529.
4. Cho, D. Y., & Hong, S. T. (2013). Social Construction of Publicness and Its Historical Frames. *The Journal of Asiatic Studies*. 56(2), 10-12.
5. Choi, S. Y., & Kim, K. H. (2013). A Comparative on Form and Function of Super Block in Central Urban Area. *Journal of Urban Policies*, 4(1), 35-60.
6. Coastal Engineering Research Center. (1984). *"Shore protection manual"*. Department of the Army, Waterways Experiment Station.
7. Haslett, S. (2010) *Coastal Systems*. Purungil. 24
8. Holye, B. S., Pinder, D. A., & Husain, M. S. (1988). *Revitalising the Waterfront*. Belhaven Press. 6-7, 13.
9. Jeong, G. S., Kim, Y., & Seo, I. J. (2011). Comparative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Case Cities through Waterfront Regeneration. *Journal of The Korean Urban Management Association*, 24(4), 267-298.
10. Jeong, S. (1994). *An Approach to the Partnership in Urban Space Design Based on an Analysis of the Public Characteristics in the Exterior Space of Architecture*. Doctoral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52-55.
11. Kim, M. J. (2012). Recreation, Beach in French society and New Body. *Journal of Sokdang Academic Research of Traditional Culture*. 53, 189-214.
12. Kim, S. B., & Kim, K. H. (2012). Realizing Publicness with Discourse and Participation on Architectural Design Process in the Case of Seattle Public.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8(2), 131-138.
13. Kim, Y. H. (2008). A Study on the Registration of Shore in Cadastral Records. *Ocean Policy Research*, 23(2), 191-220.
14. Kim, Y. J. (2015). Beginning of Bathing Beach Culture in the Period of Japanese Colonialism and Changed Views of Bathing Beach, *The Journal of History*, 29, 7-9.
15. Ko, S. H. (2014). Publicness:concept, history, issues. *Hwanghae Review*, 84, 8-27.
16. Kwon, Y. S., & Cho, M. S. (2010). *A Study on the Urban Planning and Design Principles on Riverfront*, AURI. 5-6, 30-31.
17. Lee, E. B. (1998). *Strategies for Enhancing Publicness in Urban Architecture Through Urban Spatial Design: A Focus on Office Architecture in Seocho District, Seoul*.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18. Lee, H. C., & Ha, M. K. (2010). A Study on Architectural Publicity of Underground and Indoor Open space in Mixed-use Buildings.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6(12). 23-34.
19. Lee, S. H., & Jeong, J. Y. (2001). A Study of Formation Process and Improvement for Waterfront. *Journal of Urban Studies*, 11, 9-19.
20. Lim, E. Y. (2003). Publicness: Concept, Crisis, and the Conditions of Activation Publicness.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9(1), 2-50.
21. McLachlan, A., Defeo, O., Jaramillo, E., & Short, A. (2013). Sandy beach conservation and recreation : Guidelines for optimising management strategies for multi- purpose use. *Ocean & Coastal Management*, 71, 256-268.
22. Paik, W. K. (2007).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ness in Korea.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18(2), 1-22.
23. Park, T. H., & Shin, H. W. (2020). Constructs and a Dynamic Model of Publicness in Modernity: A Complex Value System.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58(3), 93-124.
24. Park, W. S., & Song, W. O. (2014).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KIOST. 20-26.
25. Rhee, J. W. (2003). A Study on factors that make busy of Street spac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55(17), 143-152.
26. Saito, J. (2009), *Publicness*. eumbooks. 19-28.
27. Semoshenkova, V., Newton, A., Contin, A., & Greggio, N. (2017).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n Integrated Beach Quality Index(BQI). *Ocean & Coastal Management*, 143, 74-86.
28. So, Y. J. (2003). The Crisis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Publicness Problem. *Journal of Governmental Studies*, 9(1), 5-24.
29. Yang, J. W. (2004). *Proposing Strategic Program o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the Beaches in Busan*. Busan Development Institute. 5-6.
30. Youm, C. H., Cho, J. B., & Sim, K. M. (2008). *A Fundamental Study on the Contemporary Publicness of Architecture and Urban Space*. AURI. 20-22, 28-34.
31. Yu, H. J. (2021). *The Cognition of the Publicness of Parks Supplied through Redevelopment Projects*.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 21-24.

(Received Oct. 10, 2024/ Revised Nov. 5, 2024/ Accepted Nov. 18, 2024)